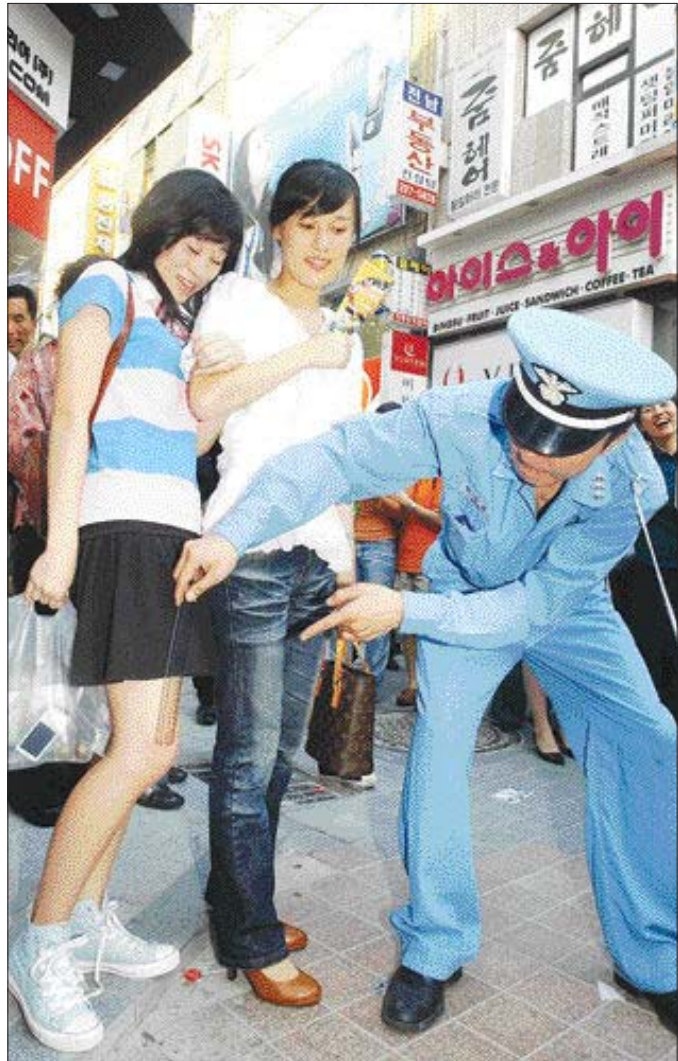


'문화 광주' '관광 전남' 축제에 빠지다



광주김치대축제



'7080세대와 2030세대의 화려한 만남' 총장로축제



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상달제

결실의 계절이다. 예부터 결실은 수확과 축제로 이어졌다. 맛있는 음식을 먹고, 좋은 술을 마시고, 춤과 노래도 곁들였다. 남도 들녘도 10월에 접어들면서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. 광주·전남 곳곳에서 시작된 흥겨운 축제를 한 곳에 모아봤다.

◇광주
8일 막이 오르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전후해 광주비엔날레와 총장로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전시행사가 이어진다.

▲문화·예술제전=제88회 전국체육대회(8~14일)는 스포츠 경기 외에 문화수도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볼거리·먹거리·즐거거리가 가득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진다.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정문 앞에서 연일 문화 난장이 펼쳐진다. 이곳에서는 거리미술과 마임, 피에로 등 거리 퍼포먼스를 하루 4~10차례 열고, 대형 붓글씨 쓰기와 건강 줄넘기 대회·길거리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펼쳐진다. 아간에는 남사당 공연과 시립관현악단, 교향악단 공연 등이 관객을 손짓하며 '화려한 휴가' 등 광주와 전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상영도 준비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전국 각 시·도 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를 위한 '시·도 홍보관'과 지역 우수 상품 홍보를 위한 '우수상품전시관', '농특산물 전시 판매장', 8도 향토음식장터 및 호남지역 향토음식관 등도 운영된다.

▲광주디자인비엔날레=5~11월 3일까지는 올해로 2회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린다. '빛'을 주제로 38개국 818명의 디자이너와 114개 기업관이 참가해 2천7천여 점의 첨단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.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본전시외에도 디자인 발자취를 조망하는 '명예의 전당'과 '남도디자인 자산 100선' 등 2개의 특별전시와 디자인평화선언 상징조형물 건립 등 특별행사도 이어진다.

▲추억의 총장로축제='7080세대와 2030세대의 화려한 만남'을 주제로 내건 이 축제는 9~14일 총장로·금남로 등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. 광주 100년의 흔적을 담은 '추억의 시간여행'(구 화니백화점) 전시를 비롯한 경복 안동, 해남 등 전국 42개 자치단체 공연단이 참여하는 첫날의 거리퍼레이드 등이 볼만하다.

이 밖에 '광주김치대축제'(17~21일)와 임방울국악제(15~18일), 정월성국제음악제(19~21일), 고싸움놀이(8일)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이어진다.

◇전남
전남에서도 다음달 초까지 역사·음식·단풍 등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진다.

▲'남도 음식 맛보세움'=제 7회 광양 전통 솥불구이 축제(5~8일)와 제 1회 귀족 흑산홍어축제(6~7일)가 열려 미식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. 홍어축제는 풍어제와 흥어 무료시식, 흥어 썰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흥어와 특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.

'맛찾아 떠나는남도 가을여행'을 주제로 열리는 '제 1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'(17~22일)는 전남 22개 시·군의 별미 음식 등 남도음식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.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한 의

국인, 고등·대학생 요리 경연대회도 열린다. 행사기간 동안 낙안읍성 동문(오후 2시~4시)에서는 수문장 교대식을 볼 수 있다.

▲다향에 취하고 소리에 젖고=곡성 심청 축제(4~7일), 순천 팔마문화제(14~28일), 나주 영산강문화축제(24~28일), 해남 명랑대첩제(26~28일), 2007 화순 운주 문화축제(27~28일), 진도 아리랑 축제(11월 1~4일), 초의선사의 다도(茶道)정신을 기리는 해남 초의 문화제(11월 3~4일)가 이어진다.

올해 섬진강 기차마을로 장소를 옮겨 열리는 심청축제는 취타대를 선두로 왕후 심청의 마차행렬, 11개 읍·면 전통 길놀이 행진과 심청전 내용을 마당극으로 만든 '뽕파전' 등이 진행되고, 부대행사의 하나로 제 7회 섬진강 마라톤대회(30일)도 열린다.

'천불천탑과 도암사람들'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순 운주 문화축제는 마임 '운주 이야기' 공연을 비롯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650여명을 초청해 열리는 기로연(耆老宴) 행사, 영화 '화려한 휴가' 야외 상영, 탑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
영산강문화축제는 '살아 숨 쉬는 2천년의 역사박물관'이라는 주제로 왕건·장화 황후 궁중혼례 재현, 나주목사 모의재판, 마한 수도제(반남 고분군), 나주목도 보여줌 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.

명랑대첩 410주년을 맞아 해남군은 삼도 수군통제사 입성식 등 거리 퍼레이드와 명랑대첩 당시의 해상전투를 재현하며, 진도군 역시 울돌목 현장에서 '10회 세계 평화제'를 갖고 명랑해전 전사자의 혼을 달래는 진도 씻김굿, 만가(장례) 행렬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시연한다.

특히 '서편제 보성 소리축제'(20~21일)기간 동안 보성에서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및 전국 고수 경연대회를 비롯한 전국 귀명창대회도 열린다.

▲천관산 역사 굿기도 해리=장흥 천관산 역사제(7일)를 시작으로 순천만 갈대축제(20~28일), 함평 대한민국 국향(菊香)대전이 개최된다. 호남의 5대 명산중 하나로 손꼽히는 천관산(723m)의 역사대(환희대)과

정사(연대봉) 사이 역사물결을 헤치며 걷는 가을산행은 다도해의 풍광과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또 다른 운치를 느끼게 한다.

갈대축제 식전행사로 마련되는 순천만 걷기대회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천만 선착장에 이르는 3km 거리의 순천만을 따라 걷는다.

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24일간 열리는 국향대전은 점성대·에펠탑 등 모양을 본뜬 소인국 테마파크가 조성되며 3만3천㎡에 이르는 국향광장과 국향터널 등이 꾸며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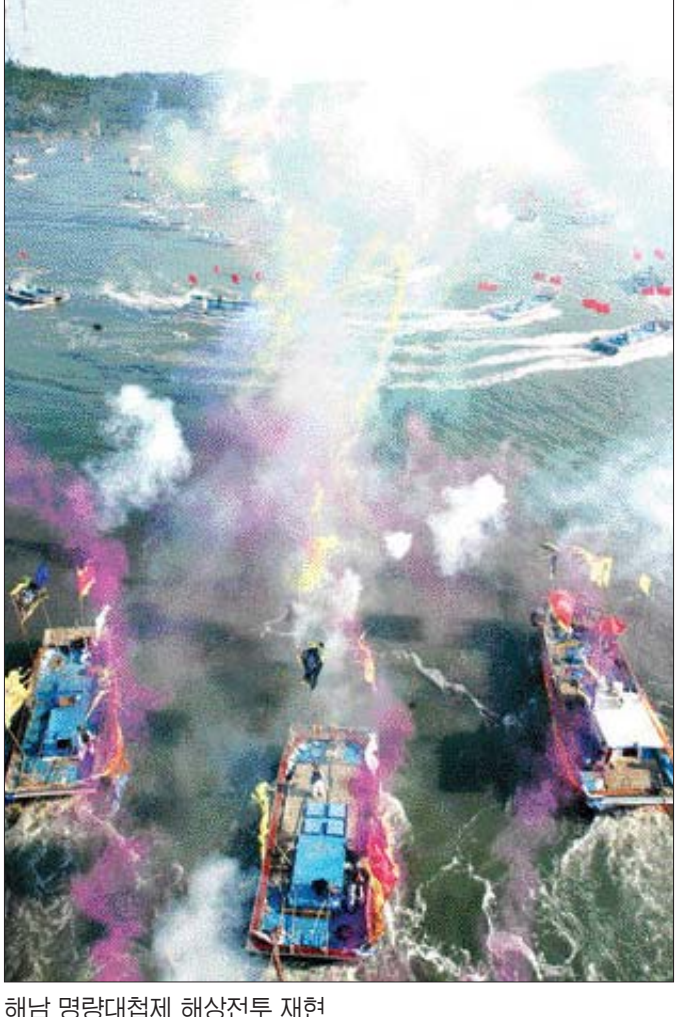
또 단풍 절정기에 맞춰 장성 백양 단풍축제(11월 3~4일), 구례 피아골 단풍축제(11월 3~4일), 대흥사 단풍축제(11월 9~11일)가 펼쳐진다.

이밖에 24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'대한민국 농업박람회'는 농산물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.

/김주정기자 jjnews@kwangju.co.kr /송기동기자 song@kwangju.co.kr



곡성 심청 축제



해남 명랑대첩제 해상전투 재현



장성 백양 단풍축제

로덴 로덴 로덴
특가 SALE
 특별기획상품행사
 신상품 30%~최고 50% 할인
 RODEN 로덴
 062) 232-8966

베트남 국제결혼
 짧은 아픔입니다. 그러나 **아오자이 국제결혼** 과 함께하는 현실은 더 아름답습니다.
800만원대 가솔-과-과-비행
실속경제비용
아오자이국제결혼
 062) 232-8966
 010-5256-8966